



이 단장 일정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2일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시디지털 융합 교육혁신 플랫폼 사업 협약식에 참석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12일 오후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2024 청소년 통일골든벨 경북지역대회 본선에 참석한다.

영덕교육지원청 행정 총체적 부실덩어리

공사비 부풀리기 눈 감았나 제 멋대로 엉망진창 행정...

영덕교육지원청이 교육행정이 총체적 난국이다. 영덕교육지원청이 시설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관내 유치원이 폐원하면서 사용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제품을 무단 폐기해도 모두 승인했다. 영덕교육지원청의 부실덩어리 방만한 행정이 여론매를 맞고있다.

때문에 경북교육청이 영덕교육지원청이 메스를 댔다. 1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영덕교육지원청은 2022년 K초등학교 축구부 휴게실 개축 정보통신공사를 하면서 설계도에 관로구 방수 2곳, 스위치 허브 1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도 준공 정산 때 감액 처리하지 않고 공사업체에 25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 축구부 휴게실 개축공사에

서도 설계도에 상수도 인입용 터파기(모래지정) 35m를 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하지 않았는데도 감액 처리를 하지 않아 110만원 과다하게 지급했다. 이 휴게실용 냉난방기를 구매하면서도 설계도에 실외기 노출배관 트레이 1조, 공기조정 장치 설치용 크레인 1대를 설치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이같이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감액 처리하지 않아 43만원을 과다지급했다. J중학교 교사동 외벽개선 및 기타 공사

에서는 설계도에 품질시험비를 올려 놓고도 품질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교육청은 그대로 비용을 지급해 282만원을 낭비했다. 교직원 연립관사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에서는 설계도에 고압 물세척 535㎡를 하도록 돼 있으나 134㎡를 누락시켰는데도 감액 처리하지 않고 정산해 120만원을 과다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북교육청은 영덕교육지원청에 과다 지급된 806만9000원을 회수토록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도

통보했다. 영덕교육청은 관내 S유치원이 2022년 심장자동충격기, 보존식 냉동고, 조리실 에어컨 구입을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332만원을 교부받았다. 다음해 폐원하기까지 영덕 내에서만 사용처를 조회하고 이 제품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 없자 사용하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이들 제품을 무단폐기했다. 이 유치원의 재산 및 물품 처리 계획 결과를 승인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여은 기자



경산시 리틀야구단 '준우승'

경산시 리틀야구단(단장 경산시장은)은 지난 1~10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태백스포츠파크야구장에서 열린 '제4회 태백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우수한 경기력과 단합된 조직력을 앞세워 준우승을 차지, 전국구 최강팀의 면모를 또 한번 과시했다. 경산시 리틀야구단 단장인 조원일 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결실을 보고 있는 경산시 리틀야구단 선수들께 축하를 드린다. 앞으로도 개인과 팀의 성장은 물론 야구를 통해 경산시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해달라"고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진=경산시제공)

사이버도박 중독된 경북 중고생 236명...

3년간 약 1억5500만원 사이버 도박으로 탕진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박채아(사진) 도의원은 11일 제347회 정례회에서 학생 사이버 도박 급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경북도 몰수 마약 폐기 절차 및 보관 과정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 도의원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최근 3년간 학생 사이버 도박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중학교 140명, 고교 96명 등 총 236명이 약 1억5500만원의 금액을 사이버 도박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236명의 중·고등학생이 사이버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도박자금 총액은 1억5561만원이다. 바카라 132명, 스포츠토토 97명, 메가볼 11명, 기타 15명으로 집계됐다. 박 도의원은 임 교육감에게 중학생 사이버 도박이 더 높게 나타난 실증자료가 있음에도 올해 학생 도박 실태조사에 고등

학생만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북교육청의 교육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형식적 정책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 도박은 마약만큼이나 위험한 것이고 일부 타 시도의 경우 도박자금 총당을 위해 제2차 범죄에 가담하는 등 큰 사회적 악으로 존재하기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상황에서 도박 근절·예방을 위해서는 초등학교까지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도의원은 경북도의 몰수 마약의 폐기 처분·보관 관리 체계의 문제점도 질타했다. 그는 경북도의 몰수 마약 폐기 처분 3년 치 데이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관 임의 없이 보건직 공무원들이 자체 폐기한 건이 대부분이 점을 언급하며 "마약은 유출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입회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북 정체성 지켜라...

이선희 도의원 도정질문서 일침 이철우 경북지사 대구·경북통합 전 도내 균형발전 전략 마련...

이선희(사진) 경북도의회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일침을 가했다. 이 경북도의회은 제347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선 7기부터 대구경북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후 반대 입장을 보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기존 입장과 달리 올 5월부터 행정통합이 재추진되게 된 상세한 경위와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논의 과정을 물었다.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이 아닌, 도민의 의견통합이 먼저라고 목청을 높였다. 때문에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심

을 지키는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경북지사는 "행정통합을 하기 전에 통합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방안을 미리 내놓고 청사진으로 도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며 "동부·서부·북부 지역의 각 발전 방안을 특색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허북 도의원이 제기한 행정통합 명칭과 추진 시기 관련 질의에서는 "행정구역 명칭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인데 대구경북이라는 명칭을 공동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언론사의 통합자치단체 명칭 선호도 관련 조사에서 '대구경북'을 선호하는 의견이 60.8%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행정통합 찬성이 45.5%로 반대 27.2%의 두 배를 기록하기도 했다.

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도 이철우 도지사는 "청사 위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더 큰 자치권을 가져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청사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더 추가되는 것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북부권으로 가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좋아야 된다"며 "대구시와 합심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효 좋은 결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따라잡기 위해 우리 자체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산업을 일으켜야 하며 중소기업, 노동, 환경청들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받아야 사람이 된다"며 "대구 집 팔아서 경북 고향에 집 지으면 양도세 면제해주는 등 세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낙동강 국가정원, 안동 먹거리 골목 등 북부권 발전 전략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2

군위군의회, 군부대 유치 적극 기원

군위군의회가 지난 10일 제28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군부대 유치를 적극 환영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는 대구시 도심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에 필요한

사항과 각종 기관·단체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부대의 성공적인 군위군 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부대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대표발의 김영숙의원)이 통과됐다.

박수현 의장은 “우리 군위군의 역점 사업인 대구 군부대 군위군 이전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전격 가동

시장 직속 국장급 행정통합 전담조직 신설 9월 특별법안 발의, 연내 특별법 통과 목표

대구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해 오는 17일부터 즉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통합추진단은 연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특별법안 마련과 낙후 지역 균형발전정책 수립 등을 전담한다.

지난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통합TF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통합방향과 추진체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

또한 지난 4일에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모여 4차 회담을 개최했다.

4차 회담에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통합로드맵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도출했고, 양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 비용 지원과 행정재정적 특례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차 회담 이후 대구광역시에는 속도감있는 행정 통합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통합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통합추진단을 시장 직속, 국장급으로 신설해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시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한다. 7월 조직개편 시 20여 명의 규모로 정식 직제화할 방침으로 고위직 신설 없이 정책총괄조정관 직위를 활용하고 농수산 물유통공사 파견복귀 인력 등을 재배치해 구성한다.

통합추진단은 1국 2과, 15명 규모의 현원 배치로 다음주부터 즉시 가동하여 신속히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에게는 조직운영

의 자율성과 대상자 우선 선발의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경제·산업·예산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력들을 배치해 행정통합 수행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현행 기획조정실장 중심의 통합TF 실무추진단은 통합추진단과 실·국 통합협의체를 총괄하고 행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정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특히 통합추진단은 경직된 관료제적 업무체계의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고 미션 중심의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팀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미 대구시는 시장의 특별지시로 중앙에 요청할 권한이양사무, 규제완화 사무, 특례 등을 적극 발굴하는 등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우선 분석·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향후 통합추진단은 정부 권한과 규제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 지역개발 등 이양사무의 발굴과 함께 국·회·정·부·시의 회 등과의 협의, 대구·경북 산하기관 통폐합 및

이전 정책, 대구경북 통합지자체의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통합추진단은 대구경북 통합지자체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경북 북부지역을 집중 발전시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각종 특구 개발, 통합공기업 이전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지자체 행정조직 배치의 경우도 지역 균형을 고려해 지역별 분산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지자체가 출범하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국을 직제상 최선임국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대구시 통합추진단은 경북도와의 합동추진단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양 지자체 간 수시회의를 통해 최적의 통합방안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2년 전 2022년 대구경북 통합 논의 시에도 '대구경북행정통합 합동추진단'을 꾸려 산적청사 도시사 관사에 사무실을 배치해 운영한 바 있다.

앞으로 대구시는 시가 구상하는 통합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경북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통합 특별법안을 9월 말에 발의하고, 10월 의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안)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 후 연말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목표로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양대 경제축을 형성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이고, 오래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행정체제 대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있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면적의 통합지자체가 되며, 경기도와 동일한 31개 시·군·구·자치단체를 가지게 된다. 또한 통합지자체는 인구 500만의 비수도권 최대 도시가 되어 수도권에 맞서는 새로운 경제축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여은 기자

군위군, 축제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축제 개발에 함께할 주민 대상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QR 접속

군위군은 지역의 축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군위 축제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군위군은 올해 글로벌관광도시로의 비상을 위한 대표축제 개발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군위의 정체성을 담은 주민주도형 대표축제 개발과 향후 축제 운영 시 주도적 역할을 할 주민 축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 아카데미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내지 2회에 걸쳐 축제 관련 전문가 초청 교육 및 컨설팅, 국내 우수 축제 견학, 축제 개발 기획회의의 참

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민들이 축제 관련 전문지식과 마인드를 함양하고 군위 대표축제 개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축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참가자 모집기간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다.

축제에 관심있는 군위군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20명 정도로 지원방법은 모집포스터 QR(큐알)코드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카데미 운영 기관(☎)코뮤니타스, 053-746-0021)이나 군위군청 문화관광과(054-380-6915)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성 기자



중구청, 국가보훈부 장관 감사패 수여

보훈회관 건립 보훈가족 복지증진 공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인정



중구청은 보훈회관 건립 및 보훈가족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인정받아 11일 국가보

훈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중구청은 전액 지방비로 '중구 보훈회관'을 조성하고 올해 2월 개관했다.

현재 1~3층에는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사패는 국고보조금 지원없이 지역 보훈회관을 조성하고, 관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수여됐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며 “지역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대한 존경과 감사에 대한 마음과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고,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보훈 선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수성구, '제1회 수성가족 육아사진 콘테스트' 개최

'순간포착! 육아 삼매경'을 주제로 행복한 가족모습 담은 사진 전시

수성구는 지난 10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일상 속 육아에 힘쓰는 가족의 희노애락을 표현한 사진을 전시하고 시상하는 '제1회 수성가족 육아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제1회 수성가족 육아사진 콘테스트는 수성구어린이집연합회와 연계해 추진한 신규 보육특화사업으로 저출생 인식을 개선하고 일·가

정이 양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간포착! 육아 삼매경'이란 주제 아래 수성구 어린이집 이용 자녀를 둔 가정들 대상으로 사진 작품을 모집했다.

환한 미소를 짓게 하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 236개 작품을 접수했으며 심사를 거쳐 총 98개 작품을 선정했다.

선정작 가운데 행복의 품을 받은 30가정에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직접 상장을 수여했으며, 우수상을 받은 63가정에는 어린이집을 통해 개

별도 상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시상식에 수성구 캐릭터 '뚜비'와 함께하는 기념 촬영 행사가 열려 콘테스트를 더욱 풍요롭게 했다.

김대권 구정장은 “주민이 보내주시는 작품을 보고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감동을 받았다”며 “이 행사가 아이의 소중한 순간을 담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육아에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대구 기초지자체 최초로 군청 민원전용주차장에

달성군은 군청 민원전용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면을 설치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공공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반에 따른 규정이나 제재는 없지만, 군민에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도록 일상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달성군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가로 2.5m 세로 5m 크기의 바닥 면에는 남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국가유공자 우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군은 하반기에 보훈회관에도 2면을 설치하는 등 공공기관 등에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균형을 찾는 국가유공자분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군민들은 나라 사랑의 마음과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평소에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군은 5월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혼합계단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에 이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도 확보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안전·편의 보장 및 예우·복지 증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여은 기자

북구청, 찾아가는 지방시대 토크 개최

북구는 11일 북구청소년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지방시대 토크'를 개최했다.

대구시와 북구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구민들에게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역할사업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토크 형식으로 진행했다.

토크의 패널로 참석한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장(충남대 명예교수) 및 하세현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경북대 교수)은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구현의 중요성,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조미경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3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책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구동부도서관, '도서관이 집으로 왔다' 2기 모집

대구동부도서관은 어린이의 자발적인 독서 습관을 기르고 가정 독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집으로 왔다' 프로그램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들의 마음의 힘을 기르는 인성, 공감 능력 발달을 위한 감성, 창의적 사고를 위한 지성과 관련된 도서 180권을 사서가 직접 선정

한다.

도서관은 △독후활동지 및 키트와 함께 제공하는 책바구니 대출 △독서 미션을 수행하면 독서기록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독서발자국 챌린지 △참가자를 위한 독후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국립경국대' 내년 3월 출범

경북발전 선도하는 K-인문 세계 중심 공공형 대학 도약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국공립대 통합을 전국 최초로 추진, 내년 3월 '국립경국대학교'라는 교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통합심사위원회에서 통합의 타당성과 통합 이후 특성화 계획 등에 대해 5차례 심의와 수시 서면심의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일 두 대학의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통합 시기는 내년 3월 1일이다. 통합 교명은 '국립경국대학교(이하: 경상북도 종합국립대학교)'로 결정됐다. 대학본부는 4층 1국 1본부를 설치하고 안동 캠퍼스는 4개 단과대학, 예천캠퍼스는 1개 단과대학(4개 학과)을 두고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총 1539명(안동캠퍼스 1429명, 예천캠퍼스 110명)을 선발한다.

안동 캠퍼스는 인문·바이오·백신 분야 지역전략산업 선도를 주요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예천 캠퍼스는 축산, 응급구조, 소방방재, 자동차과 등을 뒤 지역 공공수요 기반 인재 양성

을 한다. 통합대학은 안동시와 예천군을 아우르는 경북 북부지역의 거점대학, 나아가 경북도 대표 국립종합대학으로서 경북 발전을 선도하는 'K-인문 세계중심 공공형 대학'으로 대도약을 비전으로 삼았다.

주요 특성화 전략으로 △대학-교육연구 공공기관 공동운영으로 교육 연구 기능 수행 △한글국학진흥원과 인문융합교육으로 K-인문 세계화 △기관-대학-학생간 통합대학 구축으로 학생수요 중심 교육 △지역문화·바이오·백신 육성으로 고교-대학-기업상생발전 구현 등을 추진해 나간다.

도는 통합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 전의 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재학생, 휴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을 지원해 통합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정부의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란 국정과제에 맞춰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재편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중심 지역발전 모델로 국공립대 통합 대학 혁신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통합 모델을 추진했다. 그 결과 두 대학은 2023년 교육부 주관 글로벌

컬 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8월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추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별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통합은 전국 유일의 국공립대 통합 선도 모델로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공공형 대학 모델로 만들 계획"이라며 "지방대학이 지역을 살리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명주 기자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받습니다.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 릴레이 챌린지

경북도가 지난해 3월 안동 풍산시장에서 산불예방 계몽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2년 연속 전국 1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총 6개 평가지표 목표 모두 초과 달성...

경북도가 '202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4(20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가운데 산림분야를 산림청이 분석해 이뤄졌다.

그 결과 최우수 5개 기관(경북, 충북, 인천, 울산, 세종), 우수 3개 기관(전북, 경남, 대전)이 선정됐다.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지표는 △건강

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육성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임도시설 실적률 △산림병해충방제 성과 달성률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등으로 총 6개다.

도는 6개 지표의 성과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령'과 '산불 예방 캠페인 현장 릴레이 챌린지' 등 경북도만의 특수 시책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2022년 대비 산불발생건수 30% 감소)를 실현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경북의 임도 시설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산불 진화 임도는 전국 사업량(34km)의 50%(17km, 전국 1위)를 확보했다.

산불 예방 숲 가꾸기는 전국 사업량(1만 6000ha)의 31%(5000ha, 전국 1위)를 확보, 올해 봄철 산불방지(2012년 이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저 달성)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도는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으로 도정 발전의 원동력을 삼고자 새달 1일부터 산림자원국을 신설(산림소득과 신설 포함)한다.

조현에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난해 산사태 피해 등 많은 어려움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던 성과가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북의 산이 보물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교육청, 난독 학생 치료·상담 확대 지원

학생 기본 역량 향상 다양한 지원 지속적

대구교육청은 초 1학년부터 고 3학년 학생 중 언어문제 등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개별적 특성과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필요한 전문적인 치료(훈련)와 상담을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난독은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정확성이나 유연성에 장애가 있는 학습 장애다. 난독 학생은 정상 지능임에도 불구하고 쓰기 배우는데 힘들어하는 학생을 말한다.

대구교육청은 난독 학생 지원 예산 3억원을 편성했으며 대구시 소재 난독진단검사 기관 10

곳과 난독바우처 제공기관 56곳을 지정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난독증 의심 학생 심층진단 및 치료, 학부모 상담 등을 진행하며, 비용은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심층진단 검사비는 1인당 25만원, 난독바우처는 1인당 연간 48회(회당 5만원) 지원된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1차로 학생 30여명을 신규 난독바우처 지원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연장 지원 학생 포함 총 120여명의 학생에게 난독 치료(훈련)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초등학교 1학년 중심으로 난독증 의심 대상자를 2차로 선정해 지원한다.

대구교육청은 효과적 난독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3일 대구교육청 행복관에서 지역 초·중등학교 업무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황태용 기자

Advertisement for 'Jeongeom Construction' (정안건설) featuring a large architectural rendering of a modern building and several smaller inset photos showing construction progress and interior views. Text includes '정안건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and '창의적인 생각과 열정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재대구 예천산악회 감천 주마산 등반행사

재대구 예천산악회는 지난 9일 석송령을 방문하고, 감천 주마산 산행 후 감천행복문화센터를 방문해 제21주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재대구 예천산악회는 예천 출향인들로 구성

된 단체로 이날 행사에는 재대구 출향인과 지역민 등 180여 명이 참가했다. 정기총회에는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을 환영, 참석자들은 주

마산을 오르며 고향 예천 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0만 원을 기부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재대구 예천산악회 송지훈 회장은 "고향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며 고향사랑기부제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시대 연다

포항시, 조직개편 전격단행 1실·4국에서 6국·1본부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위한 기반 마련 나서

포항시가 오는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시는 민선8기 역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제315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의결했다.

시는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1실·4국 체제에서 6국·1본부 체제로 전환, 32담당관·과에서 37담당관·과로 5개 과를 신설한다.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4년 3월 29일)되면서 자치조직권이 확충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포항형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해양수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컨벤션도시 기반 구축으로 '해양수산국'과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를 신설한다.

해양수산국은 수산 분야 4차 산업 및 어촌 관광 활성화, 해수욕장 및 해양레저관광, 해양 생태계 보전, 항만개발 등 바다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수산정책과 △어촌활력개발과 △해양산업과 △항만과를 배치한다.

한시기구인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는 △관광산업과 △마이스산업과 △컨벤션건립과를 배치하고 권역별 관광개발, 국제협력, 국내외 관광 활성화, 포항만의 특화된 마이스 행사 개발과 마이스 얼라이언스 구축, 컨벤션센터 건립 공사 등 컨벤션도시 기반 조성에 주력하게 된다.

시는 동해안에서 제일 긴 216km의 해안선을 보유한 도·농 복합형태의 경북 제1의 대도시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

마이스 산업 본격 육성을 통해 미취업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재취업 희망자 등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환경국은 기존의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외에 기후변화, 대기환경, 친환경자동차, 대기·악취 업무 전담 부서인 △기후대기과를 신설, 시민 생활 불편에 적극 대응한다.

자치행정실과 도시안전해양국은 자치행정국과 도시안전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경제국의 경제노동과를 경제노동정책과로 변경해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 분야 기능·인력을 강화한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역점 시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으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예천군, '안전골든벨 경북도 어린이 퀴즈쇼' 예천군은 10일 오후 호명초등학교에서 '2024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예천대회를 가졌다. 대회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생활 속 안전 상식 등 열띤 퀴즈 대결을 펼쳤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앞으로 어린이 안전이어로즈 및 각종 안전 문화 행사와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안전 예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예천군 제공)

'특별한 문화 동행' 국보순회전 개최

상주박물관·국립대구박물관 국보순회전 : 모두의 걸음으로

상주박물관은 지난 10일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음으로 영원한 동행, 상형토기 이야기 개막식을 열었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중적인 지도가 높은 우리나라 중요 문화유산을 지역 박물관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고, 국립대구박물관과 상주박물관이 공동 주관, 오는 9월 1일까지 이어진다.

국보순회전 12개 지역 중에서 세 번째로 개막한 이번 전시에서는 금령총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 토기(국보)와 △배 모양 토기 △등잔 모양 토기 △영락 달린 토기 △주구 달린 토기 등 지역 박물관에서 보기 힘든 문화유산들을 상주 박물관 기획전실에서 선보인다. 박물관 야외 연못에는 기마인물형토기를 대

상으로 만든 조형물 작품과, 농경문화관 외벽에서는 기마형인물토기 등을 대상으로 한 '상상 문화유산 네컷 만화 그리기대회' 수상작도 전시된다.

이후에는 국보순회전 연계 특강과 모두가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도 곁들인다.

국립대구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국립박물관과 지역박물관이 함께 동행하여, 문화발전을 함께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상주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상주박물관에서 국보급 문화유산을 향유하며, 상형 토기에 담긴 죽음에 대한 과거 신라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백암한화콘도 폐업... 지역경제 을씨년

안순자 군의원, 백암온천 관광지 활성화 중장기 계획 마련 촉구...



울진군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가 10~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순자(사진) 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백암한화콘도 폐업 이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언급했다.

백암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울진읍에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각 읍·면별 소규모로 분산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례회에서는 군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사업 진반을 점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한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승필 운전진군의회 의장은 "지역의 봉사자로서 쉽지가 않더라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한 동료 군의원들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대과없이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린다. 남은 하반기에도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안동 금소마을 여행상품 '금양연화' 출시

투어패스 구매 시 숙박 무료 제공 6월 예약자 대상, 출시 기념 할인

안동시 임하면에 위치한 천년 안동포 마을 금소마을은 1박 2일 마을여행 상품 '금양연화'의 출시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여행객들을 맞이한다.

금양연화 상품 구매 시(8가지 종류의 투어패스 형태로 판매) 마을내 숙박(일부숙소 추가요금 발생)을 무료로 제공한다.

6월 예약자에 한해 출시 기념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살아 숨 쉬는 고택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금양연화'는 여러 고택과 수로, 안동포 등 다양한 금소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여행 상품이다.

금소의 옛 이름 중 하나인 '금양(錦陽)'과 영화 '화양연화'에서 모티프를 얻어 만들어졌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금양연화는 커뮤니티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숙소 체크인 후 체험프로그램으로 △비단 같이 맑은 내를 뜻하는 '금수(錦水)'의 좋은 물, 누룩, 고두밥으로 114년 전통 임하양조장 3대 대표와 전통막걸리 만



들고 시음하기 △2024년 KBS '한국인의 밥상'에 출연했던 지역 셰프와 마을 식재료를 이용한 마을 가정식을 만들고 맛보는 쿠킹클래스 △북도광에서 대한민국 금속패물 분야 숙련 기술전수자 부부와 함께 대마 잉여물을 활용한 유등 띄우고 소원 빌기 △시골밥상으로 차려지는 조식뷔페 △마을의 자랑인 붓도랑과 길안천을 따라 골목과 생태공원 등을 걷는 금소비단길(위터스로드) 산책 △안동포짜기 시연 관람 △안동포를 활용한 차가림방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마을 화목을 위해 할매가 운영하는 '화목카페'에서의 차담 및 어둑해진 저녁 고택 앞마당에서 즐기는 전통주막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14~7월 10일에는 세계적인 팝스타 리한나 등의 의상을 제작한 백아란 작가, 자연 소재와 바느질로 뿔뿔이 찢어질 듯이 강인한 '금소마을 특산물인 헴프씨드 오일'을 이용한 신제품

런칭 오픈 전시가 금곡재에서 펼쳐진다. 8월 23~10월 26일에는 마을과 환경을 주제로 독립영화 대상 수상 감독과 함께 단편영화를 감상하는 마을영화관이 운영되고, 매일 1회 저녁 식사와 함께 창작 공연을 감상하는 디너쇼를 선보인다.

시기별 특별한 행사도 진행된다.

금소마을의 첫 여행상품인 금양연화를 선보이는 임방호 회장은 "여러 고택과 때 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현대적 여행 트렌드와 예술적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일정으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점 사라져 가는 안동포의 전승과 보존,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안동포 할매니들에게 다시 예전의 금양연화를 돌려드리고 싶은 진심을 담았다"고 전했다.

금양연화 상품 문의 및 예약은 블로그(blog.naver.com/geumsos85)에서 가능하다.

6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금·토요일/토·일요일 1박 2일 예약 및 평일 20인 이상 단체 예약이 가능하다.

행사는 안동시가 주최하고 사)국가무형문화재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회장 임방호)가 주관한다. 송명주 기자

문경 도자기 명장 유태근 작가 전시회 개최

문경 흙 문경 유약으로 문경 가마에서 소성한 문경회령 도자기 탄생

지난 10일 문경시 도자기 명장인 유태근 작가의 전시회 개막식이 문화공간 소창다령(점촌로 48)에서 열렸다.

전시주제는 신비의 세계, 문경회령(開慶會寧) 도자기로 문경의 흙과 유약을 사용, 문경의 가마에서 구워낸 회령 도자기를 선보였다.

전시기간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개최된다.

유태근 작가는 문경대학교 도자기공예과 교수를 지냈으며, 문경시 도자기 명장으로 방문요(마성면 소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세월 고려말 조선초 함경북도 회령에서 만들어진 회령 도자기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문경지역의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의 결과로 마침내 문경의 흙과 문경의 유약을 사용하여 문경의 가마에서 소성한 문경회령 도자기가 탄생한 것이다.

유 작가는 김삼식 국가무형유산 한지장 보유자와 김춘호 전승교육사가 만든 문경한지를 사용하여 그림 작업을 해왔다.

2023년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2004년 삼성미술관 리움 설계)가 건축한 경기도 화성 남양성모 성지 소장당 벽화를 문경 한지 454장에 옷칠과 밀랍을 해 세계 최대 크기의 한지 벽화를 완성했다.

문경 한지와 유태근 작가가 만나 만들어 낸 감동적인 예술세계를 이번 전시회에서 볼 수 있다.

유 작가는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로 가꾸고 보살피며 문경전통도자기를 넘어 한국도자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예천군, 군수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민원담당공무원 고충 사기 진작 시간 마련

예천군은 1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김학동 군수와 민원담당공무원간의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증가하는 악성 민원으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군수가 직접 청취하며 대응법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증가하는 민원과 격무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자세로 친절환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휴대용보호장비(웨어블) 배부 등을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을 위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명주 기자



한주식 (주)자산그룹 회장, 장학금 600만원 기탁

제36회 경주시 문화상 특별상 수상자 (주)자산그룹 한주식 회장이 지난 8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미래 경주지역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장학금 600만원을

(재)경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 한주식 회장은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출신으로 경기도에서 물류 전문기업인 자산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자산그룹은 1999년에 창립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류센터 개발, 운영 등 물류 분야와 국내 PC업계 최초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 등 축적된 기술력과 차별화된 경영 전략을 앞세워 전문기업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한수원,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 탄력 붙었다

국내 최대 '47MW'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2036년까지 8조5000억투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1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이하 K-water) 본사에서 공동 사업주인 K-water와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본금 출자와 지역사회 이익 공유를 위한 마을 법인 구성, 프로젝트 금융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총 732억원을 투입, 2024년 12월까지 안동시 임하댐 수면에 47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시설이다. 발전시설 반경 1km 이내 33개 마을 4500여



11일 한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 주주간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수원제공) 명의의 지역주민이 재무적 투자자로 사업에 참여 이 지역은 국내 제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돼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집적화단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라 40MW 이상의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수상태양광은 수면 위 부력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 농지나 산지 등의 훼손이 없고 조류 발생 억제, 수중생물 산란장소 제공 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발전 방식이다. 수질에 영향을 없는 부력체와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 수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류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사업을 통해 지자체, 지역주민, 공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2036년까지 8조5000억원을 투자, 태양광·풍력·바이오·연료전지 중심의 신재생 설비 9.8GW를 확보한다.

주낙영, 장마철 대비 토함산 일대 산사태 예방 '총력'

헬기타고 토함산 일대 산사태 피해 발생 예정지 현장 점검 주낙영 경주시장이 11일 여름철 우기를 맞아 토함산 일대 산사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시찰에 나섰다. 최근 국립공원 토함산지구 곳곳에 산사태 발생 언론보도와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헬기를 타고 한 시간 가량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산사태 현황을 두루 살피며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 시장은 "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하면서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비상연락망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어디에서나 산사태 위험지역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의식을 갖고 유사시 대피 안내에 따라 지정된 안전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들의 협조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석굴암 석굴 주변 긴급정비 공사를 비롯해 마동, 범곡리 주변 계곡부 및 토사정리를 진행한다. 외동 신계와 범곡리, 불국로에는 사방댐 준설도 실시하는 등 산사태 구조적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산사태 주변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포하고 무선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를 보급



주낙영 시장 11일 헬기를 타고 토함산 일대 산사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시 지역 산사태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위험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와 주민 사전대피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시는 지난달 16,17일 이틀간 산림청, 국가유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등과 합동점검을 가졌다.

경주디지털 역량강화 행사 성료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 7일 경주공예고 학생 주관으로 펼쳐진 디지털역량 강화행사가 성황리 마무리됐다. 행사는 '2024년 경북형 미래역량 강화사업' 지역거점 학교활동의 일환으로 경주공고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핸드폰 활용 도우미, 로봇댄스 공연, 즉석카메라 추억 만들기 등 세대 간 어울림과 디지털 신기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돼 진행됐다. 향후 프로그램은 올 11월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오시우(스마트융합기계3) 학생은 "작은 도움과 친절이 어르신께 이렇게 큰 기쁨이 될지 몰랐다"며 "로봇댄스를 구경하며 박수쳐 주셔서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주공고 학생들과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지난 7일 디지털역량 강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 불국공원 내 무허가 노점상 모두 철거

시민 중심 쾌적안전 환경조성 행정 집중 경주 불국공원의 골칫거리였던 무허가 노점상들이 경주시의 소통행정으로 십 수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 겹겹이 쌓여 있던 불국공원 내에서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해 온 노점상 10여 곳이 모두 자진 철거됐다. 무허가 노점상들은 불국공원 산책로에 매대와 물품 등을 버젓이 펼쳐 놓고 10여 년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무허가 영업을 통해 불국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 갖가지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들 노점상들이 파는 음식들이 식품위생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먹거리 안전도 우려되

는 상황이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민원을 접수해 현장 계도 및 단속에 나섰다. 시는 행정 대집행 등 강제 철거를 진행하는 물리적 방법 대신, 무허가 노점상들을 상대로 계고장을 보내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시가 이처럼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펼친 끝에 지난달 말까지 불법 노점상들의 자진 철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불국공원 노점상 정비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끊임없는 소통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결실이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노점상들이 불국공원 내에서 무허가 노점상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단속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예찰 활동을 이어나간다.

경주 암곡동 일대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 가능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수도공급이 중단된 암곡동 일대에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총 20억 원을 투입, 암곡동 일원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12km 규모의 상수관로 신설

공사를 추진한다. 구간이 일대는 태풍으로 인한 소규모 수도 시설이 파손·유실돼 임시수도를 개발해 사용해 왔다. 시는 앞서 암곡동 계정, 시래 지역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 4월까지 6km 수도관 공사를 진행해 인근 100가구 지방상수도 공급을 완료했다.

유포한 기사/사진 경주시제공

경상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Golden City Gyeongju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영덕문화재단-서울문화재단 '맞손'

지역 문화예술 확산
진흥사업 서로 협력

(재)영덕문화관광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지난 10일 대하로 서울예술인지원센터에서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김광열 영덕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사업본부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이창기 대표이사 등이 함께 했다.

협약은 사회문제가 된 지역소멸이란 목적인 과제를 거대도시 서울과 영덕군의 연대로 지역 상생



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서울문화재단은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의 문화예술 중심축으로 매년 200억 규모의 예술지원금을 1400건 이상 지원한다. 시민과 문화예술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본격 눈을 돌렸고 한 해 30여 편 공연, 40 편 영화 상영, 50여 개 문화·교육 사업을 운영해 온 영덕문화관광재단과 지역으로선 첫 번째 업무협약을 맺었다.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확산 및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양 기관 직원 간의 교류 활성화 및 문화예술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양 기관의 교류와 협력 등이다.

협약으로 영덕문화관광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은 양 지역의 축제 및 사업 현장에 임직원을 초청,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예술 확산과 진흥을 위한 사업에 협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영덕과는 1997년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로 인연 맺었고 덕분에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와 영덕군의 상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광열 영덕문화재단 이사장은 "서울이 세계적인 거대도시임에도 지방의 소도시 영덕과 상생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두 기관이 긴밀하게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 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두 기관은 축제와 각종 문화사업에 지속적으로 협업, 발전적인 상생과 성장의 사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조여은 기자



청송 현동면 진고령로당
준공식 개최

청송군은 11일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관내 청송군의회 의원, 군의원, 마을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고령로당 준공식을 가졌다.

마을 주민들의 염원으로 신축된 진고령로당은 건축면적 101㎡(약 30평)의 규모로 방2개, 거실 및 주방, 남녀 화장실 등 BF 인증을 통해 진입로 경사가 완만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완공됐다.

준공식은 감사패 전달, 노인회장 인사말씀, 군수님 축사, 테이프커팅 등으로 이뤄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진고령로당이 마을 어르신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의 유대와 결속, 소통과 화합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 노후경로당 새단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매환자 가족교실
영양군 '헤아림' 운영

영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가족 10명을 대상으로 6~7월까지 주일 총 8회기 과정으로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헤아림'을 운영 중이다.

'헤아림'은 체계·구체적인 커리큘럼 바탕으로 가족교육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의 치매환자 돌봄의 이해와 돌봄역량을 향상시키고 치매환자와 보호자 상호 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헤아림은 총 8회기(치매알기 3회기, 돌보는 지혜 5회기)로 운영,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치매 종류별 초기증상 및 위험요인 △치매진단 및 치료와 관리 △치매 어르신 마음 이해하기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의사소통 방법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청도 아랑 고고장구
공연 봉사 30명 참석

청도 아랑고고장구봉사단은 지난 10일 풍각면 송서2리 경로당에서 어르신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고장구 공연봉사활동을 가졌다.

봉사활동은 지난 4월 청도여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됐다.

제22회 단오절 그네뛰기 대회 개최

울릉문화원은 전통명절 단오를 맞아 10일 울릉군 사동농업기술센터 자생식물원 그네터에서 민속그네뛰기 대회를 개최했다.

울릉군 주최, 울릉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된 '제22회 단오절 그네뛰기 대회'는 잊혀져가는 민속고유의 놀이를 되살리기 위한 대회이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건전한 사회기풍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단오날 민속그네뛰기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식전행사로 울릉도 아리랑, 단오절 시낭송, 트롯공연, 액운을 쫓기 위해 행했던 참포머리감기 시연이 있었고, 본 행사로 그네뛰기 대회(단체전)와 팔씨름 대회(개인전)가 열렸다.

행사를 주관한 울릉문화원 최동일 원장은 "행사 개최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울릉군과 각종 단체, 사동 이장·지도자 및 주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영덕군, 도시재생뉴딜 바리스타·쿠킹 교육 수료식. 영덕군이 마련한 '바리스타·쿠킹 클래스 교육' 수료식이 지난 7일 영해면 한 카페에서 열렸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른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교육은 주민 10여 명이 참여해 지난 4월 2일부터 커피, 견과류, 다과, 다식 등 각 분야를 섭렵한 전문 강사들로부터 이론과 실습을 두루 배울 기회를 제공했다. (사진=영덕군 제공)

도내 지자체 사랑나눔 고을가구기 운동 한창

저출생 극복 성금기탁 잇따라
폐농자재 수거·농촌정화 활동

경북도내 일선 지자체마다 사랑나눔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기탁 행렬도 잇따르고 있다. 아름다운 고을가구기 행사도 열리고 있다.

■청도군, 사랑애 채움 나눔

청도군 각남면 생활개선회는 지난 10일 사랑애 채움 나눔 냉장고에 삼계탕 등 반찬을 기부했다.

각남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매년 하절기와 동절기를 막론하고 이웃들을 위해 삼계탕, 김장김치 등 다양한 반찬을 기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정희 각남면 생활개선회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박상길 각남면장은 "매년 다양한 반찬 기부활동을 통해 이웃 간의 따뜻함을 전파하는 생활개선회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후속기 소외계층이 외면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도군 새마을회, 저출생 성금 기탁

청도군은 지난 11일 (사)청도군 새마을회(회장 전인주)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735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청도군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발상지 청도의 새마을단체로서 매년 새마을을 환경살리기, 휴

살리기 운동, 사랑의 김장나눔기 및 사랑의 집고쳐주기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전인주 새마을회장은 "청도군 새마을4단체 735명 전 회원이 적극 동참하여 청도군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1만 원씩을 모아 총 735만 원을 기탁, 청도군 저출생 극복에 새마을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평소 청도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주신 데 이어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에도 새마을회가 적극 동참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청도군이 필승, 마패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마을회가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영양수비초로 생산한 고추장 기부

농업회사법인 두아에프엔에스(대표 김태범)는 11일 영양군에 영양고추로 가공한 고추장(6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농업회사법인 두아에프엔에스는 영양군의 특산물인 고추를 직접 및 계약 재배, 가공, 판매하며 고추와 사과 등을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 제품을 생산한다.

토종 고추 품종인 수비초로 만든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백화점과 임직 계약, 납품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 및 홍보에 앞장서고, 영양군 특산물 최초로 2024년 경북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태범 대표는 "앞으로도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나눔문화를 지속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전국 최고인 우리 지역의 명품 고추로 만든 제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 주신 김태범 대표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기부된 물품은 영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울릉군, 농촌정화활동 구슬땀

한국농업경영인울릉연합회 20명은 지난 7일 한국여성농업인울릉군연합회와 합동으로 농업용 폐농자재 수거 및 농촌정화활동을 했다.

회원들은 농사짓느라 힘든 와중에도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울릉도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농촌정화활동에 참여했다.

농업경영인울릉연합회는 어려운 여건에도 오랜기간 농업현장을 지키면서 선진농법 습득, 신기술 보급 등 선도농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울릉도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며 농업발전에 애정해 왔다.

손용관회장은 "나물농사 짓느라 다들 힘든 가운데 회원들과 함께 폐농자재 수거활동에 참여, 앞으로도 깨끗한 농촌만들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바쁜 가운데서도 농촌정화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울릉군 농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농업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권윤동 기자 정윤환 기자



청도 각남면 생활개선회 반찬기부



청도새마을회 저출생 극복 성금 735만원 기탁



두아에프엔에스 고추장(600만 원 상당) 기부



울릉군, 농촌정화활동 구슬땀

청송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 앞장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군새마을회와 협업, 지난 7일 청송 정원에서 열린 새마을을 환경살리기 행사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집중 홍보'

에 나섰다. 2020년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음료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해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 전용수거함이나 별도로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제도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버려지는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다.

깨끗하게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면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만들 수 있어, 2021년부터 분리배출이 의무화되고 있다.

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일회용품 줄이기 안내서를 나눠주며 분리수거 방법과 일회용품 줄이기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군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정착을 가속화하고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6월말까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집중 홍보기간'(4월 20일 ~ 6월 30일)을 운영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순환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봉화지회, 봉성면 우리
동네 효 노래자랑 열어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봉화지회는 오는 12일 봉성문화 복지센터 야외무대에서 우리 동네 효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효 노래 자랑으로 가요밴드, 플루트, 색 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마련돼 있으며, 또한 지역 어르신 10팀이 참가해 노래 자랑도 함께 열려 흥을 더할 예정이다.

권석재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봉화지회장은 "이번 행사로 문화 소외 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노래 자랑을 통하여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봉화지회는 지역 사회의 문화 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화합을 위해 2022년부터 우리 동네 효 노래자랑 및 행복 나눔 동행 콘서트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5월부터 9월까지 총 5회 개최한다. 전상기 기자



의성군의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의성군의의회는 지난 10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26일까지 17일간의 제9대 전반기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20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24일부터 군정질문,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광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성군의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영주·안정농협, '공공형계절근로센터' 본격추진



실무단 베트남 타이빈성
방문 30명 직접선발

영주시는 오는 8월부터 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과 함께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내실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역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

가는 지역농협에 신청해 단기로 인력을 쓰는 제도다.

이 제도는 농가가 숙식을 직접 제공하면서 일정한 기간 고용하는 기존 고용 방식보다 부담이 덜하다. 특히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1일 단위로 인력을 사용해 소규모 영세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해 송호준 부시장 등

실무단 7명을 지난 9일 베트남 타이빈성에 파견했다.

15일까지 일정으로 방문한 실무단은 영농테스트, 현지면접, 교육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에서 근무할 최종 30명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된 근로자들은 8월 중 입국해 3개월간 공동숙식 및 체류하며 안정농협을 통해 수확기 단기인력 필요 농가의 일손을 돕게 된다.

성주, 참별이와 함께하는 '마실 두뇌게임 대전' 개최

치매예방하러 스마트 TV
앞으로 모두 모이세요...

성주군치매안심센터는 가족지원과와 연계하여 10일 '스마트 똑똑학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경로당 4개소(성주읍 대항1리, 선남면 도흥3리, 가천면 창천3리, 초전면 복지회관) 이용 지역주민 70여명을 대상으로 「참별이와 함께하는 마실 두뇌게임 대전」을 개최했다.

스마트 똑똑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5월부터 매주 대면·비대면 결합 실시간 원격 송출 교육방식으로 8회기 운영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으로 운영 강사가 대항1리 경로당에서 대면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 및 직접 제작한 영상 송출과 동시에 화상플랫폼을 활용하여 나머지 3개의 경로당 이용자도 원격으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

8회기 수업 중 5회차에 운영된 「참별이와 함께하는 마실 두뇌게임 대전」은 2023년 운영 시 어르신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올해도 특별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으며 공 유키기, 청기백기, 퍼즐 맞추기, 컵 놓이 쌓기, OX퀴즈 등 두뇌 및 신체 활동이 동반되는 오락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특별히 이병환 성주군수도 스마트 똑똑

학교 경로당 중 중점으로 운영하는 성주읍 대항1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70명의 어르신들과 57지의 협응력, 집중력, 순발력, 통합인지, 기민성이 필요한 미니게임에 참여하였으며 참여하는 모두가 각 마을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게임에 참여하여 경로당의 열기를 후끈 데웠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스마트 기기를 보면서 수업하는 게 낯설었지만 선생님과 익숙해지면서 기기를 사용해 배우는 과정이 즐겁고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며, 화면을 통해 다른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재미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병환 성주군수는 "어르신들께서는 집에 계시기보다는 경로당에 나오셔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똑똑하게 치매 예방하시고 치매 걱정 없는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행사와 관련해 소감을 밝혔다. 도재훈 기자

영주시-소백산생태탐방원 생태관광 활성화

주요 관광자원과 특산물
활용한 생태관광 본격 시동

영주시와 국립공원공단 소백산생태탐방원(이하 '탐방원')이 11일, '영주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탐방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남서 시장과 주재우 원장이 참석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지난해 탐방원과 함께 운영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Sobaksan Global Friends'가 한국관광공사 주관 'K-컬처 특화 10대 프로그램'에 선정됐고, 올해는 탐방원이 '우수웰니스 관광지'에 신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양 기관의 협력이 이번 협약으로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관광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시 생태관광거점시설로 탐방원을 홍보하고 탐방원은 지역의 우수 관광자원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연간 1회 이상 공동 팸투어 운영 ▲국가단위 공모전 및 박람회(이벤트) 등 협력 참여 등도 협약에 포함됐다.



양 기관은 소백산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북석사, 소수서원 등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과 풍기인삼 등을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게 된다.

주재우 소백산생태탐방원 원장은 "영주시와 협력해 영주 대표 관광지인 소백산과 지역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우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소백산 산행과 숲속명상 프로그램 체험, 천년고찰 북석사 탐방과 풍기인삼 불고기 만들기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참여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https://reservation.knps.or.kr>)을 이용하면 된다. 전상기 기자

의성 지역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실시

의성군은 지난 9일 지역특화형 비지사업으로 정착한 외국인과 동반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역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정주하게 될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의 뿌리와 지력을 확인하는 한편, 정착한 이들과 주기적인 만남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전년도 8월에는 「어서와~ 의성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의성의 대표 명소인 고운사, 조문국 박물관, 빙계계곡을 탐방하였으며, 금년에는 '신라 천년역사 속으로'라는 주제로 신라의 수도인

고령 다산단기치매쉼터
'치매환자쉼터' 운영

고령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매주 월, 화, 수요일(총 24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쉼터를 운영한다.

치매쉼터 "아름다운 기억학교 2기"는 1기반에 이어 2기반으로 운영되며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인지자극 미술 프로그램, 음악활동,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대농 위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내 대다수 농가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안정농협과 함께 면밀한 준비를 거쳐 지난해 연말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중개센터 공모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베트남 타이빈성과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유치 부속합의서 개정, 계절근로 유치인정 조율 등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계절근로중개센터 근로자를 위한 공동숙식시설로는 안정면 용상리에 위치한 효마루 농촌체험휴마마을(대표 안우석)을 임차했다.

시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풍기농협과 영주농협을 통한 국내 인력중개, 중부지역은 안정농협을 통한 국외인력을 중개·알선 받을 수 있는 권역별 농촌인력중개 운영체계가 마련돼 농촌인력난 해소와 함께 영농인건비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 한해 농가들의 만족도를 살피, 내년에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중개센터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내국인 인력수급 활성화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로 일손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베트남 방문단은 오는 13일에는 하이퐁 국제협력부와 계절근로자 신규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인력수출 해외지사체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전상기 기자

영천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영천시가 경북도 내 최초로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은 '2023년 영천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학자금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 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 지원사업과 성실 변제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 조기상환 지원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한 청년을 대상으로 초입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일정 기간 이상 성실 변제자를 대상으로 조기상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기존 신용불량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최은하 기자

경주를 방문하여 불국사, 동궁과 월지, 대릉원 및 천마총을 둘러보며 신라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했다.

부인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산토스(네팸)씨는 "가족과 함께 정착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은 의성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준 것에 고마워했다.

의성군은 지역특화형 비지사업으로 전국 각지의 외국인 25명이 관내에 취업하여 지역특화형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으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총 40명이 의성군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 금년도에도 9월까지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족 초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다수 있어 정착 외국인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박재성 기자

인지훈련 등 증상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산면 단기치매쉼터에서 운영되어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산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높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윤00)는 "집 가까이 있는 단기치매쉼터에서 기억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고령군치매안심센터(950-7977)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배영백 기자

밝은 내일을 열어가는 영덕군의의회

대개의 고장 동해안 해양관광중심지 우리 영덕군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인심 또한 후덕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으로 주민들의 작은 목소라도 크게 들으면서 신뢰받는 의회상,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덕군의의회
YEONDEOK COUNTY COUNCIL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일하여 섬기는 의회

청송군의의회
Cheongsong Gun Council

청송군의의회 신청사

군민과 하나 되는
청송군의의회가 되겠습니다.

청송군의의회
Cheongsong Gun Council

시
민
을
위
한
열
린
의
회

경산시의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
경산시의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